

# 들어가며

---

## 예수의 삶

… 세계에서 가장 슬픈 나라는 예루살렘 주변 지역일 것이다. 반대로 갈릴리는 매우 녹색으로 그늘지며 미소짓는 지역, “노래 중의 노래”의 고향, 사랑하는 자의 노래들이다. 3~4월 두 달 동안, 이곳은 비교할 수 없는 여러 색상의 꽃밭을 이룬다. 동물들은 작고 다정하다 – 섬세하고 평평한 거북 비둘기. 너무 가벼워서 마치 잔디 풀을 구부리지 않고 그 위에 누운 푸른 새들, 여행자의 발아래 모험하는 벼슬 가진 종달새들, 부드럽고 활기찬 눈을 가진 조그만 강 거북들, 모든 어리석음을 제쳐둔 어둡고 신중한 황새들은 인간이 그들에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거의 초대하는 것 같다. 세계의 어느 지방에도 산들이 더 조화롭게 퍼지거나 더 높은 곳으로 영감 주지 않는다. 예수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의 신성한 경력의 가장 중요한 행동은 산에서 일어났다. 그곳에서 그는 영감을 받았다. 그곳에서 고대 선지자들과 비밀 교제를 가졌다. 그곳에서 그의 제자들은 그의 변형을 목격했다. (레난)<sup>1</sup>

---

1 Life of Jesus

… The saddest country in the world is perhaps the region round about Jerusalem, Galilee, on the contrary, was a very green, shady, smiling district, the true home of the Song of Songs, and

이 책은 10~13세기 중세 로마네스크 승원 회랑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과 그 주변에 관한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건물을 상징 또는 장식에 사용하는 조각 모티브에는 권위적으로 네 계층으로 나눈다. 상위가 인물, 둘째 동물, 셋째 식물, 하위가 아칸서스 모티브이다.

필자는 반대 방향으로, 아칸서스와 식물 연구를 시작하여 동물을 걸쳐, 인물에 관한 글로 접근하였다. 2018년 발간한 『중세 승원 회랑의 초목과 꽃 조각 장식』과 2019년의 『중세 승원 회랑 조각에 나타난 동물 우화 미뉴스크립의 종교적 상징』이다.

---

the songs of the well-beloved. During the two months of March and April, the country forms a carpet of flowers of an incomparable variety of colours. The animals are small and extremely gentle – delicate and level turtle-doves, blue-birds so light that they rest on a blade of grass without bending it, crested larks which venture almost under the feet of the traveller, little river tortoises with mild and lively eyes, storks with grave and modest mien, which, laying aside all timidity, allow a man to come quite near them, and seem almost to invite his approach. In no country in the world do the mountains spread themselves out with more harmony or inspire higher through. Jesus seems to have had a peculiar love for them. The most important acts of his divine career took place upon the mountains. It was there that he was the most inspired; it was there he held secret communion with the ancient prophets; and it was there that his disciples witnessed his transfiguration, (Renan)

그럴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운 대학에 다녔던 불교 신자였던 필자는 매주 열리는 예배를 되도록 피하고 싶었다. 불교 신자라 양심에 꺼리는 점 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동양의 로투스 모티브를 보면, 웬지 모르게 명상하게 되고, 이 습성은 서양에서 유학하는 동안 영국 캔터베리 성당의 아칸서스로 옮겨졌다.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흘러, 그 사이 성경에 관심 두고, 신학도 공부, 연구하는 필자의 변한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인지?

서양 중세는 암흑시대라 대부분 종교 신자가 문맹자이다. 교회는 이들에게 쉽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려 성경 텍스트들을 이미지로 옮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업적을 설명했다. 그 숨은 의도는 구약과 신약이 강조한 메시아의 출현에 희망 걸고, 세상 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함이다. 구약 사상은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이고, 신약의 것은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메시지 “이웃 사랑”을 배우고 실천함이다.

연구 대상으로, 이번에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따라 로마네스크 장식이 가장 발전한 남프랑스-북스페인의 승원 회랑들을 참고 자료 및

방문을 통해 찾았다. 또다시 하나님, 부모님, 가족과 가까운 분들에  
필자의 11책 책이 발간될 수 있는 정신, 실질적 배려에 감사드린다.  
한국학술정보 이담북스의 끈임없는 협동의 아름다운 제스처어가  
큰 몫을 담당함도 알리고 싶다.

2020년 헬싱키에서

이희숙

# 목차

---

들어가며 • 4

## CHAPTER

1

---

이스라엘 역사와 사회 • 10

## CHAPTER

2

---

성경: 구약과 신약 • 32

## CHAPTER

3

---

구약: 기록한 하나님 숭배 • 44

## CHAPTER

4

---

사자와 영웅: 삼손·다윗·다니엘 • 80

## CHAPTER

5

---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 130

CHAPTER

6

예수의 선지자와 사도들 • 218

CHAPTER

7

로마네스크 승원 회랑의 성경 인물 조각 • 248

CHAPTER

8

서기 천년: 말세와 그 여파 • 258

CHAPTER

9

텍스트-이미지 읽기와 해석 • 272

참고 문헌 • 284